

문 대통령 “예산안, 이제 정부 책임”

“국민의 삶과 직결... 시급한 사업 만반 준비해야 내년 예산안, 포용국가 현정부 국정철학 담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산 확정이 늦어지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 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 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기획재정부의 수고가 컸다”고 격려했다.

이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고,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제발행 계획의 28조8000억원 중 13조8000억을 발행하지 않게 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율을 38.0%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공

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해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며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달 5일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에서 여야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사안들을 거론하며 후속 법안의 연내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검정 기준 개정 등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 내은 법안들도 의결됐다.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뉴스

지역현안 해결·재난안전 특교세 32억 확보

민주당 안호영 의원



세 7억원을 기반으로 앞으로 길이 30m, 폭 6m의 재가설공사가 오는 2020년 6월 완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진안 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32억원을 확보했다.

10일 안호영 의원은 2018년 제3차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2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완주군 등 4개 지역의 주민불편 해소 및 재해예방 등이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완주 삼례읍 하리~신금간 농산물 운송로 포장 10억원을 비롯해 진안 부귀면 미곡교 정비공사 7억원, 무주군 무풍면 백학교 재가설 공사 7억원, 장수군 장수읍 노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4억원 및 산서면 사창 새마을 위험교량 재가설 4억원 등이다.

삼례 하리~신금간 농산물 운송로는 삼례읍삼동장과 만경강(우안측)을 연결하는 군도 7호선으로, 그동안 주민 통행 및 농산물 운송을 위한 주요 도로로 이용돼왔는데, 특교세 확보로 도로로 2.4km의 하리~신금간 농산물 운송로 완공시 6,600여세대, 1만5천200여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사일에 종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동천을 횡단하는 탄방마을과 금척마을을 연결하는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교량인 무주 백학교 또한, 특교

가설공사 관련 확보된 특교세 7억원의 길이 20m, 폭 10m의 교량과 함께 200m의 주변정리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장수군 노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면, 37가구, 75농가의 주변 농지 이용 주민과 함께, 1일 300여명의 일반통행자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창 새마을 위험교량 재가설로는 해당 마을 55세대, 125명과 함께 주변농지 이용주민 100명의 안전 및 농사 전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호영 의원은 “주민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일념 하에 특교세 확보에 나선 것이 주요했다”며 “주민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을 수시로 방문해 그 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안전장망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야3당 “선거제도 개혁 촉구... 임시국회 즉각 열어야”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10일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 낡은 정치, 구태정치, 특권정치를 바꾸려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촛불민심을 끝내 외면하고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누리기 위해 정권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이냐”고 말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고집하고 있는 도농불합 선거구제가 과연 국민에게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꾸기 위한 대책이냐”며 “지금 지지율로는 정당하기 어려우니 도시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배지를 달고 싶은 속내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임시국회 소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연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원내외 7개 정당-정치개혁공동행동 시국회의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정당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주제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외 정당도 참여했다.

야3당은 기자회견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시국회의

를 진행했다. 이들은 시국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연대에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에 합의하라”면서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계기로 협치가 제대로 작동해 하고 대통령은 5당 대표와의 담판 회동을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뉴스

효자동·삼천동 천변 인근 악취 사라진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행안부 특교세 13억원 확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삼천동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천변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신동에 위치한 노후된 서곡교의 내진 및 보수·보강을 위한 행안부 특교세 총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이 확보한 이번 특교세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전용관로 신설(8억), 서곡교 내진 및 보수보강 사업(5억) 등 기반 시설 정비·조성 사업 총 2건이다.

음폐수 전용 관로는 완산구 효자동, 삼천동 공동주택 주민 및 천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계속된 고질적인 민원이다. 인근 삼천 둔치 펄프작 악취

로 인한 불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존 관로 중 자연 유하 구간인 삼천동 속개개 옛길~효자동 삼천 둔치 구간에 음폐수 전용 압송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또한 1일 교통량만 5만대에 달하는 서신동 서곡교는 건설된 지 20년 이상 지나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급히 교량의 내진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교세(5억)를 통해 관련 사업을 시급히 진행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곡교 보수·보강 공사와 천변 인근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두 손들어 환영한다”라며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촘촘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